

新政府의 勞動政策에 대한 討論 答辯

조우현·조준모*

1. 저량과 유량의 개념

경제변수들 가운데 어떤 일정시점에서 조사된 변수를 스톡(stock) 변수 또는 저량 변수라 하고,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파악된 변수는 플로우(flow) 변수 또는 유량 변수이다. 스톡 변수의 대표적인 예가 실업률이고 플로우 변수의 대표적인 예가 국민소득이다.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으로 스톡 변수들인 실업자수와 경제활동인구의 백분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톡 변수이다. 남성일 교수의 자연실업률 해석은 스톡과 플로우가 구분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업률은 일정시점에서 파악된 스톡 변수이므로 유량 변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1997년도 분기별 실업률을 e_i ($i=1,2,3,4$)라고 정의하자. 이 경우 연간 실업률 U 는 대략¹⁾ $U=(1/4)\sum_{i=1}^4 e_i$ 이 된다. 만약 $e_i=e$ 라 가정하면 $U=e$ 가 되어 연간 실업률은 분기별 실업률과 평균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즉, 저량 변수인 연간 실업률이 0.01로 가정한다면 분기별 실업률도 0.01이 된다.

남성일 교수의 코멘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dU=-0.0089$ (계산 생략)를 얻었다. 그리고 연간 성장률이 1% 감소함에 따라 자연실업률이 0.89%씩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0.89%의 실업률 변화는 조우현·조준모 교수의 계산대로라면 분기별 변화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간 변화율을 계산하려면 4를 곱하여 3.56%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전술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이 엄청나게 커지는……”

남성일 교수의 오해는 저량과 유량 변수의 개념에 대한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 조우현 =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1) 실업률은 취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백분율이다. 따라서 연도별 실업률의 경우 연도별 취업자수와 경제활동인구를 제곱하여 계산하고 분기별 실업률의 경우 분기별 취업자수와 경제활동인구를 제곱하여 계산될 것이다. 그러나 대략 분기별 실업률의 평균치는 연간 실업률을 대변한다.

2. 자연실업률의 개념

1970년대까지 자연실업률은 수요·공급 등의 일반적인 시장여건에 영향받는 경기동행적(procyclical)인 개념이 아니라 노동시장 시스템에 관한 고정적 지표로서 여겨져 왔다. Hall(1979)은 자연실업률의 결정요인으로 사용자의 채용비용(cost of recruiting), 이직비용(cost of turnover), 일궁합의 효율성(efficiency of job matching), 근로자의 실직비용(cost of unemployment)을 들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가 자연실업률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자연실업률이 하나의 안정적이며 고정적인 비율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고실업이 지속되면 자연실업률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이력현상(Hysteresis)이라고 한다. 기업의 특수 인적자본이나 노조로 인해 내부근로자가 독점력을 가질 경우 이러한 이력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Katz(1988)는 지적하였다. 대단위의 불황이 닥쳐왔을 때 내부근로자가 독점력을 상실하고 외부실직자가 되었을 경우 자연실업률은 임의보행을 하게 된다는 결과는 Blanchard and Summers(1988)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미국의 자연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Juhn, Murphy and Topel(1991)은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비숙련 노동자는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숙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본에 투자하기보다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장기실직을 선택해 왔고, 이는 비숙련 노동자의 인적자본과 근로의욕을 더욱 감소시켜 자연실업률을 증가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를 수용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IMF경제위기의 대량실업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연실업률의 임의보행 정도는 증가할 것이며, 이력현상에 의해 자연실업률 수준 자체도 장기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자연실업률 추정방법

우리나라에 소개된 자연실업률 추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번째는 필립스곡선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Perloff & Wachter(1979)가 사용한 방법이다. Perloff & Wachter는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외부충격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임금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공급 측면의 충격변수를 포함하지 않아 자연실업률의 변동요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한 필립스곡선의 추정은 이영훈(1995, 대우경제연구소)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두번째 방법은 King, Stock and Waston(1995)의 방법으로

자연실업률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확률추세의 형태로 모형화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장동구(경제분석, 1996)는 자연실업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상태공간모형화(State Space Representation)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미국과 같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경기변동에 따라 이동할 경우에 적절한 반면, 1997년까지 강한 고용보호를 지향해 왔으며 연공서열적인 임금구조하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는 데는 결과의 개선이 없다고 추측된다.²⁾ 마지막으로 Gordon(1982), Nickell and Andrew(1983), Beenstock et al(1986), Glyn and Rowthorn(1988)의 방법인데, 필립스곡선 모형에서 인플레이션 함수식을 추정한 후, 공급 측면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지 않는 실업률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자연실업률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지속적인 노동규제하에서 안정적인 자연실업률을 추정하는 데 적절하며 자연실업률 변화의 주된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찾는 데 적절하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1982~93년까지의 우리나라 자연실업률을 추정한 예는 Jinsoo Hahn(1996)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연실업률 추정은 자연실업률의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근까지의 자연실업률의 크기를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노동생산성, 여성취업자 비율, 입직률/이직률만을 사용하였으나 Charles R. Bean(1994,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은 보다 광범위한 자연실업률 추정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자연실업률 추정변수로서 실업자가 구직을 하게 되는 속도나 효율성을 반영하는 변수, 노조가입률 등으로 근로자의 의중임금에 대한 마크오버를 반영하는 변수, 고용보험의 replacement ratio(우리나라에는 1997년까지 고용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반영되지 못함),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조세부담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필자들은 우리나라 자연실업률을 적절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의 고실업을 반영하는 청·장년층의 비율, 3D현상을 반영하는 광공업 취업비중, 노동시장 이중성을 반영하는 대기업 고용비중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이전의 자연실업률 추정에 관한 연구들은(Jinsoo Hahn, 1996; 장동구, 1996) 1980년대 안정적이며 단조적인 변화를 가진 자연실업률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정리해고 및 파견업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촉진되고 IMF의 불황이 지속화됨에 따라 자연실업률은 임의보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King, Stock and Waston(1995)의 방법으로 자연실업률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확률추세 형태의 모형화가 필요하리라 본다.

4. 자연실업률의 해석

중전의 실업률 추정방식은 과거의 실업 데이터와 거시변수간의 관계를 추정하여 장기실업률 추정을 하였다. 따라서 경제주체의 기대물가 변화에 따른 실업 변화에 대한 이론적 기초 없이 기계적인 관계만을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IMF 경제위기로 환율이 급등하고 단기에 예상치 못했던 물가상승이 이어져 보수적으로 저평가된 실업 추정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래의 실업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서 자연실업률에 대한 논의가 좀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연실업률 추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 추정치가 모형에 예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추정 결과의 장기적인 추세 및 실제실업률과의 관계는 외국의 결과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미래의 자연실업률 추정치는 과거의 자연실업률과 비교되어 장기실업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자료로 추정된 자연실업률은 과거의 실제실업률과 비교하여 거시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다. IMF시대에 미래실업률에 대한 적절한 지표가 없다는 것은 많은 정책 혼란과 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연실업률 결정요인에 대하여 정교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단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 실업률에 대한 학계의 많은 연구와 토의가 뒤따라 보다 신뢰성 있는 실업추정치와 제시되기를 바란다.